



13일 부산 사직야구장에서 열린 프로야구 롯데-기아 경기에서 기아 선발 서재응(맨 오른쪽)이 4회말 수비 때 4실점 한 뒤 마운드에서 고개를 숙이고 있다. /연합뉴스



오초아가 13일 멕시코에서 열린 LPGA 투어 코로나 챔피언십 3라운드 8번홀에서 멋진 샷으로 벙커를 탈출하고 있다. /연합뉴스

오초아 '무서운 질주'

21언더 선두... 시즌 4승 눈앞
2위 박인비와 무려 7타차

LPGA 코로나챔피언십 3R

'골프여제' 로레아 오초아(멕시코)가 고국에서 시즌 네번째 우승과 함께 최연소 명예의 전당 입회 자격 획득을 눈앞에 뒀다.
오초아는 13일(한국시간) 멕시코 모렐리아 트레스 마리야스 레시덴티알골프장(파 73·6천539야드)에서 열린 LPGA 투어 코로나 챔피언십 3라운드에서 보기없이 버디 7개를 속아내 중간합계 21언더파 198타로 선두를 질주했다.

2위 박인비(20)를 7타차로 따돌린 오초아는 오초아는 3주 연속 우승과 시즌 네번째 정상에 바짝 다가섰다.
올해 네차례 대회에서 3승을 쟁긴 오초아는 특히 세이프웨이 인비테이셔널과 나비스코 챔피언십에 이어 3주 연속 우승을 예약했다.
오초아가 이 대회에서 우승하면 명예의 전당 회원이 되는 데 필요한 포인트(27점)를 모두 채워 박세리(31)가 갖고 있는 최연소 명예의 전당 입회 자격 획득 기록을 갈아치

우게 된다.
54홀만 치르고도 대회 72홀 최다 언더파 기록(20언더파)을 뛰어 넘은 오초아는 또 최종 라운드에서 6언더파 67타만 치면 2001년 안니카 소렌스탐(스웨덴)이 수립한 LPGA 투어 72홀 최다 언더파 기록(27언더파)을 경신한다.
첫날 김승희(20·필리핀)가 공동 선두로 맞서고 2라운드에서는 박인비가 코스레코드(64타)를 세우며 1타차 2위로 따라 붙었던 '코리안 시스템'은 사흘 연속 7타씩 줄인 오초아의 괴력 앞에 추진력을 잃었다.
열광적인 응원 등 에 업은 오초아와 동반 플레이를 치르며 힘겹게 추격전을 벌이던 박인비는 18번홀(파5)에서 트리플보기로 출아우하버해서 제풀에 주저앉아 아쉬움이 컸다.
김승희가 2타를 줄여 박인비에 1타 뒤진 3위(13언더파 206타)로 추격했고 7언더파 66타를 뺐어낸 카린 이세르(프랑스)가 12언더파 207타로 4위에 올라 치열한 준우승 경쟁을 예고했다.
조건부 출전권자의 실용을 거의 벗어난 최나연(21·SK텔레콤)도 2언더파 71타를 쳐 5위(11언더파 208타)까지 올라서며 준우승 경쟁에 뛰어 들었다.

'호랑이' 근성 실종... 최하위 추락

6연패, 잔인한 4월의 끝은 어디인가?



KIA 타이거즈가 13일 사직구장에서

서 벌어진 롯데 자이언츠와의 3차전에서 고질적인 득점타가 터지지 않아 3-4로 석패, 6연패 수렁에 빠지며 최하위에 머물렀다. KIA는 1회 3점을 뽑으며 오랜만에 타격 부활을 예고했다.

1사에서 기습 번트 출루한 발데스가 도루를 성공시키며 상대 마운드를 흔들었다. 장성호의 볼넷에 이어 이재주의 적시타로 발데스가 홈을 밟아 기분 좋게 출발한 KIA는 1회부터 3-0으로 앞서나갔다.

1회말 수비에서는 2사 만루를 무실점으로 막아 지난 5일 이후 1주일만의 승리를 거머쥐는 듯 보였다. 하지만 KIA의 발목을 미숙한 수비와 후

6차례 득점 기회 '침묵打'로 무산

롯데전 1승도 못건지고 6연패 수렁

속타 불발이 잦았다. 3회 KIA 2루수 김선빈은 가르시아의 땅볼 때 2루로 진루하는 주자 이대호를 태그 하지 못해 1사 1,2루를 만들어 줬다.

위기에 몰린 서재응은 연속 안타로 2점을 내준 뒤, 배터리 차일목과 호흡마져 맞지 않아 포수 앞에 떨어진 조성환의 땅볼을 내야안타로 내주는 등 3회에 4실점, 역전을 허용하며 무너졌다.

이날 KIA는 1회 3득점 이후 구위가 좋지 않던 선발 송승준을 더 이상 공략하지 못하는 고질적 득점타 빈곤에 시달렸다. KIA는 1회 3득점 후 2·3회를 제외하고

매회 주자를 내 보내는 등 결정적 찬스를 만들었다. 4회 1사 1·2루, 5회 2사 만루, 6회 2사 3루, 7회 1사 1·2루, 8회 무사 1루, 9회 1사 만루로 후속타 한 방이던 지겨운 연타출의 기회를 잡았으나 끝내 진루타나 득점타는 터지지 않았다. 엄청난 득점 기회로 운도 따르지 않았다. 7회 2사 1·2루에서 5번 타자 이현근의 잘 맞는 타구가 3루수 이대호의 글러브로 빨려 들어갔고, 스타트를 끊었던 2루 주자 발데스까지 아 무 되면서 역전 기회를 놓쳤다.

결국 9회 1사 만루의 천군같은 마지막 기회에서 이현근의 병살타가 터지며 경기

◇프로야구 중간순위 (13일 현재)

Table with columns: 순위, 팀, 승, 패, 무, 승률, 게임차, 연속. Rows include 롯데, 삼성, SK, 두산, LG, 한화, KIA.

는 끝이 났다.

KIA 발데스는 5타수 4안타 2도루로 맹활약하며 3경기 연속 멀티 히트를 기록했지만 팀의 6연패로 빛이 바랬다. 2경기 1.29의 평균자책점으로 호투했던 서재응은 이날 4실점하며 평균자책점이 2.7로 높아졌고, 2회가 끝난 뒤 투구 후 소리를 질러 주심 최수원씨의 주의를 받는 등 팀 연패에 대한 중압감으로 평소와 달리 위기에 쉽게 흔들리는 모습을 보였다.
/부산=김여울기자 wool@kwangju.co.kr

■ KIA 이유있는 추락

추락하는 KIA는 그동안 터지지 않는 타선에 비해 선발진의 호투로 위안을 삼았으나 지난 11일부터 열린 부산 롯데전 3연전부터는 믿었던 마운드마저 흔들리며 전반적인 전력 하향세로 이어지고 있다.

선발진의 호투에도 불구하고 타선이 좀처럼 기회를 살리지 못하며 힘 빠진 7패를 기록했던 KIA는 지난 11일 롯데와의 1차전부터는 마운드까지 붕괴되는 양상을 보이며 진퇴양난에 빠진 모습이다.

지난 11일 선발로 나온 윤석민은 5와 3분의 2이닝 동안 10피안타 3사사구로 5실

점 하며 패전투수가 됐다.

12일 2차전에서는 앞선 등판에서 6이닝 동안 노히트 노런을 기록하며 승리투수가 됐던 전병두가 2이닝 3피안타 2사사구와 3개의 폭투로 5실점(2자책점)하며 일찌감

치 강판당했다.

침묵하던 타선은 롯데와의 3연전에서 31개의 안타를 치며 타격감 조율에 나섰지만, 고질적인 결정적인 찬스 때의 한방 부족으로 10점을 얻는데 그쳐 집중력에서

여전한 문제점을 노출했다.

안방마님 김상훈의 부재도 악재다. 프로야구 2008시즌 첫 홈런을 장식하는 등 타격과 수비에서 안정된 모습을 보였던 김상훈은 지난 17일 SK와의 경기에서 홈에 채도하다 왼쪽 발목 인대가 늘어나는 부상으로 전력에서 이탈했다. 차일목이 안방마님 역할을 맡았지만 미숙한 경기 운영과 불안한 수비로 김상훈의 공백을 메우지 못했다.

보이지 않는 예라도 팀의 발목을 잡았다. 12일, 13일 모처럼 선취점을 뽑으며 기분 좋게 출발했던 KIA는 이현근의 예러와 김선빈의 수비 미숙이 대량 실점으로 이어지면서 승부가 뒤집혔다.
/김여울기자 wool@kwangju.co.kr

찬스마다 '물방망이' 마운드도 '힘빠지네'

이승엽 타격 부진 2군행

루키 유소연 프로 데뷔전 우승

일본프로야구 진출 후 최악의 부진에 빠진 이승엽(32·요미우리 자이언츠·사진)이 결국 2군으로 내려가게 됐다.



지지통신은 13일 요미우리-야쿠르트전이 끝난 뒤 이승엽이 2군행을 통보 받았다고 짚막하게 전했다. 요미우리는 14일 이승엽 대신 내야수 루이스 곤살레스를 1군에 불러 올릴 계획이다.

통신은 이승엽이 지난달 29일 센트럴리그 개막 후 14경기에 계속 선발 출장했지만 타

율 0.135(52타수7안타)에 2타점에 그쳤고 홈런도 때리지 못하는 등 부진이 계속돼 2군에서 컨디션을 조절하게 됐다고 덧붙였다.

골프 관련 회원권 광고: '골프랜드 회원권' '록펠러 회원권' 등. 연락처: (062)351-0095

KLPGA 김영주골프 여자오픈

화려한 아마추어 시절을 보낸 특급 새내기 유소연(18·하이마트)이 한국여자프로골프 국내 데뷔전에서 우승해 '지존' 신지에(20·하이마트) 아성에 도전장을 냈다.

유소연은 13일 제주 제포코스 골프장(파 72.6천264야드)에서 열린 스포츠서울-김영주골프 여자오픈 최종 라운드에서 1오버파 73타를 쳐 3라운드 합계 5언더파 211타로 정상에 올랐다.

국가대표 동료였고 올해 신인왕을 다룰 것으로 보이는 최혜용(18·LG)을 4타차로 따돌린 그는 프로 전향 이후 첫 출전한 국내

대회에서 우승컵을 안아 돌풍을 예고했다. 유소연은 2006년 도하 아시안게임에서 개인전과 단체전 금메달을 목에 걸었고 작년 전국체전에서도 금메달을 따는 등 아마추어에서 무적이었던 선수.

지난해 10월 프로로 전향, 12월 중국에서 열린 한국여자프로골프 2008년 시즌 개막전 차이나레디스오픈에서 초청선수로 나가 35위에 그쳤지만 국내 데뷔는 이번 스포츠서울-김영주골프여자오픈이었다.

작년 9승을 하고 올해도 독주가 예상되던 신지에가 출전한 대회에서 사흘 내내 독주를 거듭한 끝에 우승한 유소연은 한국여자프로골프의 전통인 특급 신인 계보를 이어가 신지에의 대항마로 등장했다.



타이거 우즈가 13일 미국 조지아주 오거스타네셔널골프장에서 열린 마스터스 대회 3라운드 3번홀에서 수 많은 갤러리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티샷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우즈 '우승 불씨' 살려

선두에 6타 뒤진 5위 최경주 9오버 최하위 PGA 마스터스 3R

'골프왕제' 타이거 우즈(미국)가 꺼져가던 그랜드슬램의 희망을 살려냈지만 '역전 불가장크스'와 힘겨운 대결을 남겼다.

기대를 모았던 '완도 탱크' 최경주(38·나이기골프)는 이를 연속 오버파 스코어로 하위권에 머물렀다.

우즈는 13일 미국 조지아주 오거스타 오거스타네셔널골프장에서 열린 PGA 마스터스 대회 3라운드에서 보기없이 버디 4개를 뽑아내며 4언더파 68타를 쳤다.

마스터스에서 12라운드만에 60대 타수를 적어낸 우즈는 트레버 이벨만(남아공·205타)에 6타 뒤진 5위(5언더파 211타)로 올라서며 역전승의 불씨를 지폈다.

최경주는 버디없이 더블보기 1개와 보기 4개를 쏟아내며 6오버파 78타를 쳐 컷을 통과한 45명 가운데 최하위인 공동44위(9오버파 225타)로 추락했다.

선두 이벨만을 포함해 우즈에 앞선 선두권 4명이 모두 세계랭킹 20위 밖에 머물고 있는 '보통 선수'들인데도 메이저대회 우승 경험이 전혀 없는 어린 선수라는 사실도 우즈의 역전 가능성이 힘을 실어주고 있다.

3언더파 69타를 쳐 2타를 줄인 브랜트 스니데커(9언더파 207타)를 2타차로 따돌리고 선두를 굳게 지키고 있던 이벨만은 PGA 투어에서 고작 한차례 우승 뿐이며 세계랭킹도 29위에 머물러 있다. 더구나 메이저대회에서 우승은 커녕 최종 라운드에서 챔피언십에서 경기를 치러본 적도 없다.

스니데커는 아예 마스터스 출전이 이번이 처음이며 이날 3언더파 69타를 쳐 3위로 올라선 스티브 플래서(미국)는 작년에 상위권 선수들이 모조리 불참한 터닝톤리조트오픈에서 우승해 가갸스로 마스터스 출전권을 잡았던 선수로 우즈의 추격을 감당할만한 감시장은 아니다. 4위에 오른 폴 게이시(잉글랜드)는 라이더컵에 두차례나 출전해 강한 압박감 속에 경기를 치러본 경험은 그나마 풍부한 편이지만 마스터스 우승 후보로 거론된 적은 없다.

/최재호기자 lion@kwangju.co.kr·연합뉴스